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41회)

제11편 - 소사신앙촌 시대 〈제2부〉

제11편
소사신앙촌시대 〈제2부〉
一. 소사라고 하는 지역
1) 무너진 하늘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예비해 놓은 곳
2) 천붕지탁소사립(天崩地坼素砂立)의 본고장
3) '흰돌'이요 '계룡백석'이다
4) 무릉도원종도처(武陵桃源種桃處)
5) 시종간야소사지(始終艮野素砂地)

다음 소개할 격암유록 계룡가에 보면 '흰돌 백석이 소사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어 흰돌 백석이 소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하겠다.

鷄龍白石 非公州계룡백석비공주요 平砂之間眞公州평사지간진공주라.....鷄龍歌계룡가

"계룡백석 흰돌은 공주가 아니요 부평과 소사 사이에 있는 곳이 진짜 공주다"

이 말의 뜻은 육적으로 계룡산이 있는 공주가 흰돌이 아니요 부평과 소사 사이에 있는 곳이 진짜 흰돌이라는 뜻으로 이 예언을 보면 소사가 백석 흰돌이라고 찍어서 알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 비결서에는 "天鷄龍(천계룡)은 不覺(불각)하고 地鷄龍(지계룡)만 찾단말가"(도부신인중에) 라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정도령이 나타나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중심지가 공주의 계룡산에서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다 그곳으로 몰리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흰돌 백석은 천계룡인 소사땅을 말한 것이다.

그러니 어떤 분이건 이 소사땅에서 천지공사를 하는 분이 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가짜가 되는 것이다. 한 구절만 더 소개 하겠다.

鷄龍白石계룡백석은 聖山地성산지니 非山非野 白砂間비산비야 백사간이 弓弓十勝眞人處궁궁십승 진인처라. .....鷄龍歌계룡가

"계룡백석 흰돌은 거룩한 땅인데 산도 아니요 들도 아닌 백사간 즉 소사가 궁궁십승 정도령님 구세주가 계신 곳이다."

이 예언에서도 흰돌은 성스러운 곳인데 소사가 바로 진인이 계시는 곳이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소사(素砂) 대신에 백사(白砂)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흴 소자와 흰 백자는 같이 하얗다는 뜻이기 때문에 흴 소자 대신에 흰 백자를 써서 같은 뜻으로 예언을 해놓고 있다.

하락요람(河洛要覽)에 천붕지탁백사립백변소화역일리(天崩地坼素砂立白變素化亦一理)라고 하여 "백이 변하여 흴 소자와 같은 뜻으로 그 이치도 같은 하나다"라고 해석을 해놓고 있다. 그렇게 적어 놓으니 더 실감나게 흰돌이 소사(白砂)라고 강조가 되는 것이다.

흰돌 위에 쓴 '새 이름'은 '새 素砂'다

지금 흰돌 위에 쓴 새 이름은 '소사' 라고 완성자 조희성님의 말씀을 알려드렸다.

위의 여러 가지 자료를 들어 설명을 한 바대로 흰돌 위에 쓴 새 이름이 소사라고 하는데 대해서 반론을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위의 증거 자료만으로도 완벽하게 흰돌이 소사라고 증명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일을 하는 곳에서 그 어리석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 내용인 즉 성경 묵시록 2장 17절에는 분명 흰돌 위에 '새 이름' 을 썼다고 했는데 어떻게 소사라는 지명이 새 이름이 될 수가 있느냐?라고 반문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자기는 하나님을 통해서 판석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앞에서도 설명한 것같이 분명 백석인 흰돌은 백사간(白砂間=素砂間)을 말한다고 예언된 것을 알려드렸다.

이만제단에서 설교하시는 박태선 영모님

어떻게 판석(判席)이란 이름이 백사 즉 소사라는 지명이 될 수가 있는가? 어이가 없는 말이다.

어쨌건 성경에는 분명 '새 이름' 이라고 했는데 소사는 새 이름이 아니라고 반론을 말한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소사가 어떻게 해서 '새 이름' 이 되는지를 설명하기로 하겠다.

먼저 "판석이가 새 이름"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부터 설명을 해보겠다.

이 사람이 주장을 하는 것은 자기가 백보좌(白寶座)에 앉아서 심판을 할 주인공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판석이라는 새 이름을 주었다는 억지 주장이다. 무식한 주장인 것이다. 왜 필자가 무식한 주장이라고 하는지를 설명을 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

이 사람은 보좌(寶座)라고 하는 정의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보좌라는 것이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그와 같은 의자를 생각하는 모양인데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생각이다. 다 영의 말씀인 것이다.

보좌란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에게 오시어 좌정하고 계신 완성자의 마음이 보좌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세 분 하나님이 합일되시어 좌정하신 자리가 곧 백보좌(白寶座)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좌면 그냥 보좌라고 하지 왜 백보좌라고 하는가?

가사총론에 보면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다. 즉

西方庚辛四九金 白帝將軍白虎之神
서방경신사구금 백제장군백호지신

해설: 서방(西方)은 천간(天干)으로는 경신(庚辛)이요, 역수(易數)로는 사구(四九)요, 오행상(五行上)은 금(金)이고 신장(神將)으로는 백제장군(白帝將軍)이고 방위의 신(神)으로는 서방(西方)을 담당하는 백호지신(白虎之神)이 된다. 그리고 방위로 서방은 가을을 말하기 때문에 이분은 인생을 추수하시러 오시는 완성자 구세주인 것이다. 그리고 색상으로는 백색(白色)이다.

위에 적고 해설을 한 내용은 인생을 추수하러 오시는 완성자 구세주 조희성님을 설명하는 구절이다. 조희성님은 금운 중에서도 신금(辛金)인 백금(白金)이시다. 그래서 이분을 백제장군백호지신(白帝將軍白虎之神)이라고 한다.

완성자 구세주 조희성님에 대해서는 전부 흰 백자(白字)를 상징적으로 써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白寶座(백보좌), 白馬(백마), 白金星(백금성), 白石(백석), 白十字(백십자)

이와 같이 주인공의 여러 대명사의 명칭을 꼭 흰 백(白)자를 넣고 표현한 것은 백금운(白金運)으로 오시는 조희성 주님이 완성의 주인공이라는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희고 큰 보좌"(묵20장)라고 하여 역시 한문(漢文)으로 백보좌라고하는 같은 뜻으로 예언해 놓고 있는 것이다.

이런 깊이 숨겨진 뜻도 모르고 무턱대고 자기가 앉아서 심판하는 의자가 백보좌라고 우기면 무식하다는 말만 듣게 되는 것이다.

흰 백자가 들어간 대명사는 다 완성의 주인공인 금운으로 오시는 구세주를 알리는 표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백보좌에 대해서는 이해한 것으로 알고 다음으로 흰돌 위에 쓴 '새 이름' 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로 한다. 이 '새 이름' 이 씌어 있다는 흰돌 즉 백석도 금운으로 오시는 구세주의 명칭임을 이제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승복을 할 수가 없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보겠다.

성경 속에는 '새 이름' 으로 기록된 말들이 많이 있다. 즉

A. 새 하늘과 새 땅(묵21:1, 사65:11)
B. 새 예루살렘성(묵21:2)
C. 새 노래(묵14:3)
D. 새 이름(묵2:17); '새 소사'
E. 새 타작기계(사41:15)

위에 적은 성경구절들은 다 하나같이 '새롭다는 새' 자가 들어가 있다. 왜 그와 같은 말들이 생겼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하나님께서는 6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망의 신인 마귀가 주장하는 사망의 세상을 청산하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즉 신천신지의 개벽의 역사를 완성한다는 뜻이 있다.

여기에 '새 예루살렘' 은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으로 완성된 구세주의 몸이다. 또 그 몸은 에덴동산이 회복된 자리이다.

그 '새 예루살렘' 되시는 구세주가 흰돌인 소사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을 창조하는 '새 역사' 를 하시니 '소사' 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중심거점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중심거점인 소사는 새 세상을 창조하는 계룡백석 흰돌 위에 쓴 '새 이름' 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묵은 소사' 는 새로운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는 정도령 구세주가 새로운 세상을 개벽하시는 시점부터 '새 소사' 가 되는 것이다.

'새 타작기계' 라는 말이 있다. 이 새 타작기계는 새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여 여시는 완성자 구세주를 말한다.

그분은 금운인 서방 가을을 맡은 분으로 출현하시어 인생을 추수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새 타작기계' 역할을 하시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타작기계' 는 하나님께서 새 세상을 여시는 새 도구로 쓰시기 때문에 "새 타작기계"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묵은 소사' 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새로운 거점이 되니 '새 소사' 가 되어 흰돌 위에 쓴 '새 이름' 이 되는 것이다.*

- 다음호에 계속

격암유록 新 해설
제10회

감(람)나무로 상징되는 정도령을 만나면 천수대복을 받아 영생하리라

天受大福

柿木扶人 시목부인
皆之柿木之林 개지시목지림
何得高立 하득고립
多人往來之邊 다인왕래지변
一水二水鶯廻地 일수이수앵회지
鷄龍創業始此地 계룡창업시차지
愚人不尋 우인불심
不入此地之人 불입차지지인
怨無心 嗚呼 後人 원무심 오호 후인
勿持世事蜉蝣乾坤 물지세사부유건곤
勿離此間祈天禱神 물리차간기천도신

감(람)나무가 사람들을 도와 붙잡으니 모두 다 감(람)나무 숲을 이루도다. 숲을 이룬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어디서 크고 굳세게 우뚝 자랄 수 있나?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길가에 있으며 삼위일체하나님의 생명수가 감도는 곳이다.

지상선국을 건설하는 계룡창업의 시발점이니 어리석은 사람은 찾지 못하리라. 이곳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죽으리라.

원무심(怨無心)은 죽을 사(死)자의 파자이다. 오호라! 후손들이여 세상일에 너무 매달리지 마라. 세상사는 천지간에 날아다니는 하루살이와 같은 것이다. 궁궁의 사이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活方何處 활방하처
非東非西不離南鮮 비동비서불리남선
南北相望可憐寒心 남북상망가련한심
地卽十處吉地 지즉십처길지
誰福謂地未卜定穴 수복위지미복정혈
各處不利勿思十勝 각처불리물사십승
只尋木人新幕 지심목인신막
肉眼不開不覺此句 육안불개불각차구
若不解得不辨時勢 약불해득불변시세

살아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동양도 서양도 아닌 남조선(대한민국)이니 대한민국을 떠나지 마라. 남북 분단으로 서로 원수같이 바라보니 가련하고 한심하구나.

지리를 말한 즉 십처길지(十處吉地)가 복된 곳이라고 누가 말했나? 여태껏 하늘에서 정한 바 없으니 열 군데 땅 각처가 다 이롭지 못하리라. 지리십승을 생각하지 말고 단지 동방의 의인이 계신(정도령) 하나님의 신의 장막을 찾아가라.

신막(新幕)은 신막(神幕)으로 하나님의 신의 장막이다. 진리를 보는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이 글을 깨닫지 못하리니 만약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세상이 돌아가는 시세를 분별할 수 없으리라.

鷄龍開國達於此日 계룡개국달어차일
辰巳聖人 진사성인
儀兵十年當此世 의병십년당차세
苦盡甘來天降救主 고진감래천강구주
馬頭牛角 마두우각
眞主之幻柿 진주지환시
榮字意何世人解寃 영자의하세인해원
天受大福永遠無窮矣 천수대복영원무궁의

진사성인은 동방의 의인으로서 마귀와의 싸움 끝에 마침내 승리하여 지상선국을 여는 이 날에 이르니 고생은 다하고 즐거움이 오리라.

천신이 하강하신 구세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신령한 어머니(영모)로 십오진주(참구세주)로 오셨으니 이는 하늘의 감(람)나무가 그 모습을 바꾸어 오신 것이다.

영(榮)자는 무슨 뜻인가? 세상 사람들의 육천년간 맺힌 원한을 풀어주고 하늘로부터 큰 복을 받게 하여 영원무궁토록 살게 하여주는 진인이라는 의미이다.

영(榮)자에서 목(木)은 동방이요 또한 감(람)나무이니 동방 땅 한국에 오신 감(람)나무의 상징이신 6도 81궁 정도령의 머리 위에 영광의 빛이 발한다는 의미이다. 이때가 실질적인 계룡 개국의 시작이 된다.

天地配合山澤通氣 천지배합산택통기
木火通明坤上乾下 천지배합곤상건하
地天泰卦知易理恩 지천태괘지역리은
三變成道義用正大 삼변성도의용정대
木人飛去後待人 목인비거후대인
山鳥飛來後待人 산조비래후대인
逆天者亡順天者興 역천자망순천자흥
不違天命矣 불위천명의

부부가 금슬지락을 이루듯 천지가 짝이 딱 맞으니 산택(산과 못)이 기운이 막힘없이 잘 통하고 목화(나무와 불)가 상생하여 어둠이 물러가니 밝음을 더하고 천지개벽으로 지천태괘가 되어 우주천지가 태평세계가 되나니 역리(역의 이치)의 은혜를 알리로다.

세 번의 변화(72궁, 여인 한 분, 81궁)로 무극대도를 이루니 의로움이 바르고 위대하도다.

목인(박=朴)이 날아가고 뒷사람을 기다리니 산조(최=崔)가 날아오도다. 산조가 날아온 후 또 뒷사람을 기다리느니라.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망하고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흥하나니 천명을 어기지 말지니라. 목인(박)과 산조(최), 후대인은 과거의 정치적인 인물이기도 하며 이면에는 5도 72궁, 여인 한 분, 6도 81궁 정도령을 암시하고 있기도 하다.*

박명하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종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몸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